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6월 3주~6월 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철도인프라] MRTJ, Cikarang · Balaraja 연장 계획 발표¹⁾(Detik, 6/3)

- PT MRT Jakarta (MRTJ)는 자카르타 도심~외곽 지역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Bekasi · Tangerang 노선 연장 계획을 발표. MRTJ 사장 Tuhiyat은 동 계획이 대통령령 제12호('25년)에 따른 국가전략프로젝트(PSN)인 동서선 MRT(East-West MRT) 사업의 일환임을 설명, 사업 완료 시 동서부 종점인 Cikarang · Balaraja를 연결하는 약 84km 규모 노선에 48개 역과 MRT 차량기지 3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일 평균 이용객은 약 60만 명으로 전망.
- Tuhiyat은 1단계로 Tomang~Medan Satria 구간 및 Rorotan 지역에 MRT 차량기지 건설 추진 및 Tomang~Kembangan 구간 공사 착수 계획을, 2단계로 Balaraja~Kembangan 및 Medan Satria~Cikarang 구간 건설 추진 계획을 밝힘.
- MRTJ 건설담당 이사 Weni Maulina는 Bekasi 연장사업 1단계가 입찰 단계에 진입했으며, Medan Satria~Tomang 구간(24.5km) 준비공사 입찰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 또한 동서선 MRT 사업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6년 말 착공 목표

○ [철도인프라] KAI, Trans Sumatra 철도망 구축에 196억불 투자 전망²⁾(Petrindo, 6/3)

- 국영철도공사 PT Kereta Api Indonesia(KAI)는 Banda Aceh~Bandar Lampung를 연결하는 트랜스 수마트라(Trans Sumatra)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약 196억불 (350tril IDR) 규모 투자를 추진하며, KAI 사장 Bobby Rasyidin은

1) <https://finance.detik.com/infrastruktur/d-8516833/rencana-besar-mrt-tembus-cikarang-dan-balaraja>

2) <https://www.petrindo.com/news/article/kai-eyes-rp350-trillion-investment-for-trans-sumatra-railway-network>

전체 사업 규모가 약 200억~25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KAI는 1단계로 Banda Aceh~Besitang 구간(478km) 연결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 또한 수마트라 전역의 개별 철도망을 하나의 남북 종단 철도망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 사업은 KAI의 '26~'30년 기업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휴면 철도 노선 726km 재활성화 및 신규 철도노선 1,110km 건설을 포함. 아울러 Tanjung Enim Baru~Tarahan II 노선의 물류 회랑 개발을 통해 석탄 물류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 [철도인프라] 자카르타 MRT, '27년 말 Bundaran HI~Monas 구간 일반운행 개시 목표³⁾(Detik, 6/3)

- PT MRT Jakarta는 자카르타 MRT 2A단계(Bundaran HI~Jakarta Kota) 사업의 '26.5월 기준 공정률이 60.78%를 기록해 목표치(59.70%)를 상회하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힘. Tuhayat PT MRT Jakarta 사장은 공사 진행에 맞춰 MRT 노선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며, 현재 Bundaran HI까지 운행 중인 MRT 노선을 Monas 지역까지 우선 연장해 '27년 중반 시범운행을 거쳐 같은 해 말 일반 운행 개시를 목표.
- 본 사업은 Bundaran HI~Monas, Harmoni~Mangga Besar, Glodok~Jakarta Kota 등 3개 공사 패키지로 구성되며, 전 구간 완공은 '29년 목표. 완공 시 자카르타 도심 북부 지역 MRT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
- 아울러 MRT Jakarta는 Bundaran HI역 하부 지하 연결공간 및 보행자 통로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이며, Monas 구간 시범운행 일정에 맞춰 '27.6월 자카르타 500주년 기념일에 맞춰 개장할 예정.

○ [인프라] 공공사업부, Getaci · Gilimanuk-Mengwi 유료도로 사업 재추진⁴⁾(Ekonomi, 6/5)

- 공공사업부는 기존 투자자와의 협력 종료로 인하여 중단된 Gedebage-Tasikmalaya-Cilacap(Getaci) 및 Gilimanuk-Mengwi 유료도로 사업의

3) <https://finance.detik.com/infrastruktur/d-8516800/mrt-bakal-berhenti-di-kawasan-monas-akhir-2027>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05/45/1978749/kementerian-pu-ungkap-kelanjutan-proyek-tol-getaci-hingga-gilimanuk-mengwi#goog_rewarded

투자자 재모집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 Getaci 사업은 재무부의 사업개발지원제도 지원을 받아 입찰 단계 준비 예정이며, 재무부는 국영기업을 지정해 사업 문서 작성 및 준비를 지원할 방침. 한편 Gilimanuk-Mengwi 사업은 투자 타당성 제고를 위해 기존 약 90km 구간을 Pekutatan-Soka-Mengwi 약 42km 구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부는 준비 절차 완료 후 두 사업 모두 입찰 추진 예정

○ [철도인프라 사라왁, 3개국 철도망 구축 추진 신수도 허브화 기대⁵⁾](Pontianakpost, 6/9)

-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정부가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를 연결하는 국제 철도망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동 계획은 신수도를 포함한 칼리만탄 지역의 연결성과 경제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하며, 사라왁 교통부 장관 YB Dato Sri Lee Kim Shin의 신수도청(OIKN) 방문 과정에서 논의됐다고 설명.
- YB Dato 장관은 Air Borneo를 통한 항공 연결성 확대와 함께 보르네오섬 3개국을 잇는 철도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사라왁 주정부는 우선 사바~사라왁 구간을 개발한 뒤, 향후 칼리만탄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 신수도청은 해당 구상이 누산타라를 칼리만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비전과 부합한다고 평가. 또한 철도망 구축 시 투자·교역·인구 이동 확대와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신수도의 지역 허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철도인프라] Hitachi Rail · Sumitomo, MRT 2A단계 개찰시스템 구축 사업 체결⁶⁾(Ekonomi, 6/10)

- PT MRT Jakarta는 Hitachi Rail Hong Kong Limited 및 Sumitomo Corporation과 MRT 남북선 2A단계 CP207(자동운임징수 · 개찰시스템 패키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동 사업은 MRT 개찰구 AFC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계약 규모는 약 19백만불(341.5 bil IDR)이라고 설명.

5) <https://pontianakpost.jawapos.com/masional/2606090007/sarawak-kaji-kereta-api-tiga-negara-ikn-berpeluang-jadi-hub-baru-kalimantan?page=2>

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12/45/1980536/otorita-ungkap-proyek-hunian-kpbu-di-ikn-rp6-triliun-mulai-dibangun-tahun-ini>

- PT MRT Jakarta 사장 Tuhiyat은 CP207이 Bundaran HI~Kota 구간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향후 교통서비스 통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MRT 남북선 2A단계 공정률은 '26.5월 기준 60.8%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
- 한편 자카르타 MRT 2단계는 11.8km의 Bundaran HI~West Ancol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27년 Monas 구간, '29년 Kota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 개통 시 남북선 총 연장은 약 27.8km로 확대되며, 총 사업비는 약 14억불(25.3 tril IDR) 규모라고 덧붙임

2. 주요 기업 · 기관 동향

○ [현지기관] 국영철도공사 KAI, Danantara 지시에 따라 INKA 인수 추진⁷⁾ (Kompas, 6/3)

- 국영철도공사 PT Kereta Api Indonesia(KAI)는 국부펀드 Danantara의 지시에 따라 '26.11월까지 국영철도차량 제조사 PT Industri Kereta Api(INKA) 인수 추진 계획을 밝힘. KAI는 여객 · 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철도 차량 수요 확대와 노후 차량 교체 수요에 대응하고, 최근 INKA와의 조달 사업에서 발생한 납기 지연 및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를 추진한다고 설명. 양사는 현재 통합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연구를 진행 중이며, 동 인수가 공급망 통제력 강화와 전 과정 품질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KAI에 따르면 인수 완료 후 INKA는 KAI 계열 철도차량 사업 부문으로 편입돼 철도차량 제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 KAI는 운영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을, INKA는 안정적인 수주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반복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통합 절차는 '26년 내 완료 후 MRO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7) <https://www.kompas.id/artikel/mandat-danantara-kai-akan-akuisisi-inka>

○ [국부펀드] Danantara, PLN 계열사 수 23개로 축소 추진⁸⁾(CNN Indonesia, 6/3)

- 국부펀드 Danantara는 Dony Oskaria Danantara COO와 PLN 경영진 간 회의에서 국영전력공사 PT PLN의 사업구조 개편 추진을 논의하였으며, '28년까지 PLN 그룹 내 사업체 수를 현재 44개에서 23개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동 계획은 전력시스템 신뢰도 제고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며, 계열사 통합·지분 매각·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기업구조 단순화를 통해 추진. Danantara는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기업지배구조·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통합된 사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아울러 PLN은 '25~'34년 전력공급사업계획(RUPTL)상 1,634개 사업(40%)이 이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 또한 수마트라 전력 공급 장애 이후 500kV·275kV·150kV 송전망 구축, 전력 기간망 인프라 강화, 발전설비 증설 및 전력망 종합 평가를 추진하며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에 나설 계획

○ [해외기관] EU, 동부 인도네시아 투자 거점으로 Makassar 주목⁹⁾(Investor, 6/11)

- 유럽연합(EU)은 Makassar를 동부 인도네시아의 핵심 투자 거점으로 평가. Antoine Ripoll 주아세안 유럽연합 대표부 의회 및 시민사회 관계 담당 공사참사관은 Makassar 시장 Munafri Ariffuddin과의 면담에서 투자,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Makassar를 동부 인도네시아 진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 도시로 평가함.
- 또한 양측은 인도네시아-EU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EU는 지속가능한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2045년 선진국 진입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8)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60803121042-92-1364846/danantara-bakal-pangkas-anak-cucu-usaha-pln-dari-44-jadi-23-entitas>

9) <https://investor.id/national/44260/uebidik-makassar-jadi-pusat-investasi-indonesia-timur>

○ [해외정부] 인니-독일, 교역 및 투자 규모 확대 합의¹⁰⁾(Antara, 6/15)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자카르타 메르테카 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투자, 에너지 전환, 교육 등 주요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 양국은 교역 및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기로 합의.
-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EU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일이 협정 마무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 또한 에너지 전환, 산업 고부가가치화, 운송, 전기차, 반도체,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독일의 투자 확대를 제안
- 한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IEU-CEPA가 양국 경제에 큰 잠재력을 지닌 만큼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평가

3. 정부 정책동향

○ 인니 정부, 토지가치환수 기반 신규 인프라 재원조달 제도 공식 도입¹¹⁾(Ekonomi, 6/4)

- 인니 정부는 국가예산(APBN) 및 지방예산(APBD) 외 신규 인프라 재원조달 제도를 공식 도입했으며, 경제조정부 장관령 제3호('26년) 토지 가치 상승분 활용·관리(P3NK)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힘. 동 제도는 인프라 개발로 상승한 토지 가치 일부를 환수해 인프라 및 공공시설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경제조정부 산업·노동·관광 담당 직무대행 Dida Gardera는 토지가치환수(LVC) 제도가 재정 제약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신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 금융수단이라고 설명. 또한 계획 수립, 가치 창출, 가치 환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폐쇄형 순환구조(Closed Cycle)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힘.
- 정부는 동 제도를 통해 지방 차원의 인프라 개발 축 구축과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도 기대하고 있음. 아울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및

10) <https://megapolitan.antaraneews.com/berita/535145/indonesia-dan-jerman-sepakat-tingkatkan-volume-perdagangan-dan-investasi>

1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04/45/1978335/skema-pembiayaan-infrastruktur-baru-resmi-meluncur-pemda-boleh-lakukan-ini#goog_rewarded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인니 정부, 100GW 태양광 사업 반영 위한 RUPTL 개정 검토¹²⁾(Hijau, 6/12)

- 인니 정부는 100GW 규모 태양광 발전소(PLTS) 개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국영전력공사(PLN)의 전력공급사업계획(RUPTL) 개정을 검토 중. 정부는 동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가에너지위원회 Saleh Abdurrahman 위원은 동 사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 다만 투자 자원 확보, 전력망 구축 및 전력 수요 확대가 주요 과제라고 지적.
- 한편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현재 PLN과 RUPTL 개정을 협의 중이며 관련 제도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또한 태양광과 함께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병행을 강조

○ 인니 지열발전 3개 사업, 총 4.7억불 규모의 국제금융 지원 확보¹³⁾(Thinkgeoenergy, 6/8)

- 국영지열발전사 PT Pertamina Geothermal Energy(PGEO)가 추진 중인 지열발전 사업 3건이 총 약 4.7억불(8.60tril IDR) 규모의 국제금융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해당 사업들은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가 선정한 해외차관 유치 대상 및 우선 추진사업에 포함돼 국제금융 조달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
- 사업별로는 Lumut Balai Unit 3·4(각 55MW)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로부터 총 약 3억불(5.56tril IDR)을, Lahendong Units 7~8(2×20MW)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약 1.7억불(3.06tril IDR)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 PGEO는 현재 관련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며, 국제금융 조달을 통해 재무 건전성 강화와 글로벌 투자기관·전략적 파트너 유치 효과를 기대

○ 인니 지열발전 사업, 글로벌 친환경 투자 유치 확대¹⁴⁾(Mediaindonesia, 6/17)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인니 지열발전

12) <https://hijau.bisnis.com/read/20200612/652/1980514/pemerintah-siap-revisi-ruptl-demi-plts-100-gw-dan-elt-lain-harus-lanjut>

13) <https://www.thinkgeoenergy.com/three-pertamina-geothermal-projects-in-indonesia-receive-477-million-in-international-financing/>

14) [https://mediaindonesia.com/ekonomi/901582/projek-panas-bumi-indonesia-jadi-magnet-investasi-hijau-global](https://mediaindonesia.com/ekonomi/901582/proyek-panas-bumi-indonesia-jadi-magnet-investasi-hijau-global)

사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투자 전문가 Dipo Satria Ramli는 지열발전 사업이 청정에너지 전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

- PT Pertamina Geothermal Energy(PGEO)가 추진 중인 Lumut Balai 3·4호기(55MW) 및 Lahendong 7·8호기(50MW) 사업은 인니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제 자금 조달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 또한 전력 판매 대금이 미 달러화로 지급돼 투자자의 환율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세계 2위 규모의 지열 자원 잠재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친환경 투자 유치의 주요 시장으로 주목. 지열발전은 안정적인 기저전원 공급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인니 정부, 광산업 수익배분제 도입 철회 및 석탄·니켈 생산 규제 완화^(Kocam, 6/15)

- 인니 정부는 투자 환경 및 산업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광산업 수익배분제 도입 계획 철회 및 석탄·니켈 생산 규제 완화를 결정. Bahlil Lahadalia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석유·가스 부문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을 광물·석탄 부문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
- 정부는 석탄 생산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니켈의 경우 2026년 연간생산계획(RKAB)에 반영되는 광석 생산량을 국내 제련소 수요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 Bahlil 장관은 동 조치가 투자 환경 개선 및 다운스트림 산업화 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
- 한편 인도네시아광업협회(IMA)는 수익배분제 도입 철회와 생산 규제 완화가 투자 확실성 제고 및 기업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로열티 및 세수 확대를 통한 국가 재정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

○ 인니 정부, 전략 원자재 수출 일원화 철회 및 가격 감시 강화^(Kocam, 6/15)

- 인니 정부는 석탄, 팜유, 폐로합금 등 전략 원자재 수출 일괄 관리 계획을 철회하고 수출 가격 감시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 당초 정부는 Danantara 산하 PT Danantara Sumber Daya Indonesia(DSI)를 통한 수출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업계 및 해외 구매자 우려를 반영해 감독 중심 체계로

변경했다고 설명.

- 정부는 수출 가격이 시장가격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저가 신고(Under-invoicing)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 또한 세수 누수 및 해외 이익 유출 방지를 주요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
- PT Danantara Sumber Daya Indonesia(DSI)는 단일 수출 창구 역할이 아닌 공정가격 확보를 위한 중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예정

○ Purbaya 재무장관, AIIB로부터 170억불 규모 개발자금 확보¹⁵⁾(IDN Financials, 6/18)

- 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은 ‘25~ ‘29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부터 170억불(300.4tril IDR) 규모의 자금 지원 약속을 확보. 해당 자금은 AIIB와 협의 중인 다년도 개발사업 체계를 통해 지원될 예정.
- AIIB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자카르타 대표사무소 설립에 관심을 표명. Purbaya 장관은 대표사무소 개설이 양측 간 전략적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Purbaya 장관은 AIIB가 인도네시아의 재정 여건과 경제 전망에 대해 높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4. 녹색산업 동향

○ PLN Indonesia Power, 중남미·카리브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확대 추진¹⁶⁾(Ekonomi, 6/6)

- PLN Indonesia Power(PLN IP)는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을 전략 시장으로 보고 청정에너지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동사는 22.1GW 규모 발전설비 운영 경험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 투자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며, PLN IP 자회사 PLN IP Renewables는 대규모 태양광발전(PV) 사업 진출 및 자체 터빈 기술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사업 개발을 검토 중

15) <https://www.idnfinancials.com/id/news/64890/menkeu-purbaya-amankan-pendanaan-us17-miliar-dari-aiib>

1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06/44/1978909/pln-ip-bidik-ekspansi-bisnis-energi-bersih-ke-amerika-latin-dan-karibia#goog_rewarded

- PLN IP는 사업타당성조사, 운영 협력 및 전략적 금융협력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할 방침. 본 계획은 제2차 인도네시아-중남미·카리브 무역·투자 협력 대사 포럼에서 소개됐으며, 에너지 전환과 경제외교를 지원하는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

○ 국부펀드 Danantara 추진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3건, PSN 지정¹⁷⁾(Bisnis, 6/10)

- 인도네시아 정부는 Bekasi, Bogor Raya, Denpasar Raya 지역의 WTE 사업 3건을 국가전략프로젝트(PSN)로 지정했다고 밝힘. 동 지정은 경제조정부 장관령 제16호('25년) 및 친환경 인프라 사업 가속화 관련 대통령령 제35호('18년)·제109호('25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각 사업은 국부펀드 Danantara 산하 PT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DIM)의 자회사 PT Daya Energi Bersih Nusantara(Denera)가 추진. 행정적으로는 경제조정부 우선인프라공급가속화위원회(KPPIP)가 각 사업 시행사(BUPP)에 PSN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진행
- 3개 사업의 시행사는 WTE Bekasi시(서부 자바)는 Bekasi Environment Nusantara, WTE Bogor Raya(서부 자바)는 Nusantara Bogor New Energy, WTE Denpasar Raya(발리)는 Nusantara Bali New Energy로 구성. Pandu Sjahrir DIM CEO는 PSN 지정이 인니 WTE 산업의 기반 구축에 모멘텀이 될 것이며, 매립지 의존도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 Fadli Rahman Denera CEO는 폐기물 관리가 지방 수요에서 국가 전략적 이익으로 격상되었으며, 3개 초기 사업이 향후 WTE 확장의 발판이자 국가 폐기물 관리 전환의 청사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PSN 지정에 따라 3개 사업 시행사는 부처 간 협력 강화, 관료적 장애물 해소 지원, 정책 수단 제공 등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

○ 에너지·AI, 인도네시아-한국 협력 핵심 분야로 부상¹⁸⁾(Antara, 6/10)

- Cecep Herawan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파트너로 평가. 에너지가 향후 한국-인도네시아 협력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

17) <https://market.bisnis.com/read/20260610/192/1979886/tiga-proyek-WTE-danantara-resmi-jadi-psn-ada-bekasi-hingga-denpasar>

18) <https://en.antaranews.com/news/418683/energy-ai-anchor-indonesia-south-korea-relations-envoy>

-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언급하며 AI·첨단기술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제시. 아울러 한국의 원전 운영 경험과 소형모듈원전 (SMR)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원자력 분야 협력 잠재력도 강조
-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은 한국 기관들과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첨단기술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양국 교역 규모는 '25년 180억불(323tril IDR)에 달했다고 덧붙임

○ 中 기업들, 인도네시아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 검토¹⁹⁾(Hijau, 6/10)

- 중국 저장성 상공회의소 회장 Nan Cunhui는 Michael Goutama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업·환경경제 담당 특별보좌관과 만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 이날 회동에는 Chint Solar의 Lu Chuan CEO 등 중국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Nan 회장은 Chint 그룹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음.
- Chint Solar는 인도네시아 태양광 발전소(PLTS)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Lu Chuan CEO는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다 일관되고 외국인 투자 친화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언급.
- 한편 Michael Goutama 특별보좌관은 Chint Solar가 산업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특화 마을 조성을 검토 중이며, 약 2년간 이어진 투자 논의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직접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신수도청, 신수도 사업 친환경 정책 병행 강조²⁰⁾(CNN Indonesia, 5/25)
 - 신수도청은 신수도 사업이 현재 중단되었다는 일각의 추측을 부인했으며, Troy Pantouw 대변인은 Universitas Mulawarman 등 동부 칼리만탄 소재 4개 대학에서 신수도 건설이 환경 측면을 지속 고려하며 진행 중이라고 설명. Troy 대변인은

19) <https://hijau.bisnis.com/read/20260610/652/1979781/pengusaha-zhejiang-lirik-investasi-proyek-plts-indonesia-mantikan-konsistensi-kebijakan>

20)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60525174657-92-1362260/orita-tidak-benar-kalau-ada-yang-bilang-ikn-mangkrak>

Basuki Hadimuljono 신수도청장 정책에 따라 신수도청 인력이 직접 식수(植樹) 활동을 추진하고 신수도 내 태양광 패널 등 청정에너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

- 현재까지 신수도 개발에는 72.39조 루피아의 투자가 유치되었으며, 이 중 순수 민간 투자 60.2조 루피아, 부처·기관 공공시설 및 위탁 사업 12.1조 루피아로 구성. 75건의 협력 계약 중 국내 사업자 64건, 외국 투자자 11건(한국·중국·UAE·러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6개국)이며, 투자는 주거·인프라·에너지·숙박·스포츠 센터·상업 시설 등에 분산. Troy 대변인은 신수도가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동부 칼리만탄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

- 신수도청, 약 3.3억불 규모 PPP 주택사업 연내 착공 추진²¹⁾(Ekonomi, 6/12)

- 신수도청은 약 3.3억불(6tril IDR) 규모의 PPP 주택사업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Basuki Hadimuljono OIKN 청장은 재무부가 PT Intiland Development와 PT Nindya Karya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승인했다고 설명.
- 동 사업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건설을 포함하며, PT Intiland Development는 단독주택 109채를, PT Nindya Karya는 아파트 8개동을 개발할 예정. 현재 공개입찰이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신수도청은 현재까지 약 89.7억불(158.7tril IDR) 규모의 투자 약정을 확보했으며, 주택·도로·다목적 터널(MUT) 사업 등이 포함됨. 또한 교육, 보건, 상업시설, 금융 및 주거 분야에서 약 37.3억불(66tril IDR) 규모의 투자와 관련해 50개 민간 기업 및 기관이 협력 계약을 체결함

2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00610/98/1979779/nitadi-rail-dan-sunitono-garap-sistem-gerbang-tiket-mrt-bundaran-hi-kota>

- 스페인 기업 관계자들, 신수도 투자·항만 관련 협력 기회 모색²²⁾(Kotaku 67)

- 다수의 스페인 기업 관계자들이 신수도 개발 지원을 위한 투자·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동칼리만탄을 방문. 이번 방문은 주스페인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주관한 경제사절단 일정의 일환으로, 대표단은 자카르타와 신수도를 방문해 사업 협력 가능성을 검토.
- Suhadi Hamid PT Pelindo Regional 4 Balikpapan 총괄책임자는 스페인 대표단이 신수도 개발 현황 및 동칼리만탄 항만 인프라 구축 상황을 직접 점검하였으며, 특히 항만의 물류 지원 역량과 향후 개발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
- 아울러 스페인 측은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솔루션과 통신·전자시스템 기술을 소개하며 항만 현대화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항만 개발 및 물류 인프라 협력에 대해 논의

- North Penajam Paser 군 정부, 신수도 지원 위한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²³⁾(Antara 68)

- 동칼리만탄 North Penajam Paser 군 정부가 신수도 개발에 따른 투자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유치 프로젝트(IPRO)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IPRO는 투자자가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사전 준비형 사업으로, 신수도 배후지역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
- North Penajam Paser 군 정부는 수자원·농업·관광을 핵심 투자 분야로 선정했으며, 인허가 지원과 사업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신수도청과 연계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
- 아울러 군 정부는 '26년 투자유치 목표를 19억불(3.4tril IDR)로 설정했다고 설명. 신수도청은 신수도 개발이 지역 투자와 경제성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2) <https://kotaku.co.id/jajaki-investasi-dukung-ikn-pengusaha-spainol-temu-bisnis-dengan-pelindo-balikpapan/>

23) <https://en.antaranews.com/news/418487/regional-govt-offers-ipro-to-support-ris-new-capital-ikn>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력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955, 샵하우스 387)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FS 완료, 주주간협약 문구 협의중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26.8월 예상)

○ (주요동향) SML-대우건설 주주간 협약 문구 수렴중

② 칼리만탄 지속가능 우드펠릿 공급망 구축

< 사업 개요 >

- (원개발사) Innovative Energy Solution (IES)
- (참여기업) 남동발전 (주주 및 Offtaker) 등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연60만톤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남동발전 등에 장기 공급
- (추진현황) 조림지 토지용도 허가 취득 ('23.5) - 원개발사 IES (싱가포르) 설립 ('24.10) - 인니 자회사 설립 ('25.1) - KIND 사전검토위 통과 (사업개발비 및 MOU 체결 승인) ('26.3)
- ('26년 센터목표) 본FS 지원 및 실사 / 결과에 따라 투자심의 부의

○ (주요동향) 현지 Mandiri 은행 금융협의 계속 / KIND FS 신청준비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아르고 마농갈 (Argo Manunggal, 마루베니와 산단 성공적개발사례 보유)
- (참여기업)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 AMG가 원소유주와 독점 가계약중인 1,694헥타르 부지에 전기차 제조업 특화 산업단지를 총 4단계에 걸쳐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AMG-Gaya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25.12 정부에 의한 사업순연 - GS 자체 DD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 의결 (4분기)

○ (주요동향) 토지확보 금융 및 시기 조율 계속

④ 까얀1 수력발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수자원공사(예정), 스미토모상사(미정)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EPC 약 15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완료 / FS 수행

○ (주요동향) KIND 지원 FS 용역 재입찰 마감후 평가 예정

⑤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투자의결 完)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골조준공식 개최('26.6) / 수요가 협상중
- ('26년 센터목표) 준공 및 운영준비 완료 / 후속안건 발굴

○ (주요동향) 공사 및 수요가 협상 계속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26. 6월 3~4주차)

- 네트워킹 5건 : 대우건설 · KIND, 자바베카, 수자원공사 · PT GTI · 유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우건설
- 사업개발 9건 : GS건설, INE, 시나르마스랜드, Muns, 현대차그룹 스마트시티추진실, MRT Jakarta · 삼성물산 · 철도공단, 시나르마스랜드, PT GTI, 롯데건설
- 대관업무 4건 :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 국토관 · 철도공단 · 건설공제조합, 국토관 · 현대차그룹 · 현대로템, 국토관 · 수출입은행 · 수자원공사 · 건설공제조합, 대사관-인니정부 공동주최 한-인니 경제파트너십 포럼